

□ 흐름과 영화

시대흐름속의 문화 '천차만별'

장석용
(영화평론가)

시대의 흐름속에 부산물을 창출하는 영화는 문화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장르의 예술중 영화는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을 모방시키기도 하며, '모래시계'처럼 새로운 영화음악을 인기곡 상위에 랭크되게도 만든다. 영화속의 미적인 대사와 행동마저도 유행하는 제스처가 되며 사용되었던 소품도 불티나게 팔리기도 한다. '젊은 남자'에서 이정제가 즐겨쓰던 지프라이더가 편의점에 등장하고 한때 사라졌던 복고풍의 조끼들의 착용이 두드러졌다.

영화에 의한 시대의 단정적 구분은 시대의 흐름과 세대와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 반전으로 치닫던 때는 히피문화가 극

성을 부렸고 '이지라이더'는 화려하게 탄생한다. 베트남에서의 패전의 충격은 허무감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은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디어 헌터'와 '플래툰'은 전쟁에 대한 반성과 통찰의 시각을 갖게 만든다. 통독이후 독일에서는 신나치즘이 고개를 들고 있고 노골적인 유대인 배격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작은 골목에서 나 최근 스위스 바젤에서의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팽배해있다.

1917년부터 1933년까지 파

적으로 구분해 내는 작업은 위험을 안고 있다. 먹을 것이 문제가 되었던 '전함 포템킨'에서 개방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와의 차이는 격세지감이다. 모스크바영화제나 체코의 카를로비 발리영화제에 이념중심에서 인류공통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우주적 공감대를 도출해내는 작품들에 관심이 있음을 감지해낼 수 있다.

그래서 영화는 정치적 함수 관제, 경제자본논리, 사회현상, 문화적 제정후를, 교육과 스포



◀윤간·오렐섹스 장면을 이윽로 공론으로부터 '등급의 편견'이라는 철퇴를 맞았으나 몇 장면 삭제된 상영하게 된 '나쁜 영화'의 한 장면. 청소년들의 탈선을 확대, 과장했다.

▶성을 매개로 정치적·이념적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관객을 혼란시킨 '너에게 나를 보낸다'의 한 장면

현실과 문화 주도하는 매체로 인식되야 모방에서 창조로 이어지는 장르

시즘 실험기에 작품이나 1925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산주의 실험기의 영화작품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적 구분은 확실히 들어난다. 사실 문화를 인위

적의 연관성에서 그 핵심적 문화변천의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영화의 해방이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919년 '의리적 구투'를 시발로 연해 활동극시대, 무성영화성장기, 토키시대, 절식기, 말살기를 거쳐 해방을 맞이한 우리영화는 식민지 치하에서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본의 소비시장 틈바구니에서 몇몇 작품의 민족성에 만족해야 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26년 동안) 풍속오락영화가 75%를 상회하는 150편의 한국영화는 60여개의 영화사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당시의 풍속도는 바로 패션이었고 유행이었다. 인력거가 뜨고 번화가 대접받던 시대의 장안의 화제거리인 영화에서 나왔고, 고급영화는

일본에서 만들고 저급하고 퇴폐적 향락문화의 하치장을 만들고자 했던 일본의 야망한 꿈은 대동아 전쟁의 패전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영화속의 신세대 풍속도 변천은 다양하다. 놀이문화와 음식문화가 다르고 의상과 색조가 다르다.

60년대 영화 '너와 내가 아픔을 같이 했을 때'의 광나루와 독성같은 장소는 자가용들의 등장으로 활동영역의 범위가 무척 넓어졌다. 바나나와 같은 과일이 고급으로 식탁에 올랐던 때와 다양한 색깔의 과일이 아무렇게나 악세사리로 자리잡고 있는 풍요로운 시대와의 대비도 재미있다.

극소수 청소년들의 탈선을 확대 과장한 나쁜 향락영화 '나쁜 영화', 성을 매개로 정치적 이념적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관객을 현혹시킨 '너에게 나를



《너에게 나를 보낸다》

보낸다'는 물신주의와 상업성이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이 현상의 '그대안의 불'은 페미니즘과 여성학의 가열된 분위기 위에 만들어진 영화이며, 입권택의 최근영화 '창'은 가난에 의해 몸을 팔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고 어쩔 재미와 호기심 그것이 죄가 되어 헤어날 수 없는 직업이 되어버린 권들의 이야기이다. 생활주변의 필수품이 소재가 된 콘트에 얽힌 에피소드를 코메디 형식으로 그린 '미스티 콘돌'은 노골적으로 성을 상품화하고 성개방 풍조를 확대 조장한다.

해방이후 6. 25전쟁 전후 만들어진 영화들은 대부분은 전쟁의 아픔을 그려내고 있고, 그것은 현실적 삶이었다. '사격장의 아이들'과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전쟁과 가난이라는 명제를 조명해내고 있고, 70년대의 '팔도강산'은 새마을 운동과 공업화 과정에서의 일상을 홍보, 계몽적 차원에서 접근해 가고 있다. 피지배 계급의 가학적 삶을 불거리로 삼은 '영자의 전성시대', '여자들만 사는 거리'의 우연을 넘어 본격적으로 영화가 현실이 되고 문화를 선도하는 매체로 인식된 80년대 후반부터 영화는 색조와 질감, 감



20세 젊은이의 감성과 역동성을 주인공 민을 통해 형상화한 '비트'

각과 창의력, 모방과 왜곡이 주종을 이루면서 대중의 호기심을 재빨리 영화에 응용 도입하면서 헐리우드가 저질러온 패턴을 급속히 전수받아가고 있다.

모방에서 창조로 이어지는 영화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고 독창성이 두드러질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불러줘 질 것이 다.

문화단신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사랑과 환상, 모험을 테마로 젊음과 활력의 도시 부천이 21세기 영상문화도시를 꿈꾸며 개최하는 시민축제이다. 로먼스, 모험, 스릴러, 코미디, 애니메이션 등 세계 27개국 82편의 다양한 장르의 명작들이 여러분을 감동과 낭만의 세계로 몰입시켜 줄 것이다.

오는 5일까지이며 매일 시청당 및 잔디광장(피판광장), 삼정복지회관, 영시네마1,2관, 시민회관, 소사구청 소향관에

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 영화제사무국 032)320-3570, 부천시 032)320-2063, 피판자원봉사센터 032)320-3784

천지인콘서트

천지인은 대중음악의 수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랑과 혁명을 노래하는 천지인 음악의 지지자들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자 모인 그룹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청계천 8개', '열사가 전사에게', '언제나 여기에'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이게 되며 안치환, 꽃다지, 윤도현밴드

등 여러가수들이 참가한다.
신촌라이브극장 '벚' ☎ 393-8467

연극 '뽕기름이 춤추네'

87년 노동자 대투쟁 10주년을 기념하는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번 공연은 한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와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비애가 절절히 펼쳐지며 그렇게 만든 자본과 정부의 논리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노동자가 스스로 지켜내고 찾아야 할 권리를 눈물겹게 그린 작품이다.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평일 7시30분, 주말 4시, 7시이다.
태양아트홀 ☎ 463-3356

동아리 소식

KHMC 가을공연

• 제 21회 KHMC 가을공연이 오는 27일 크라운관에서 열린다. 의학, 의예, 간호학과 학생들이 모인 KHMC의 남녀혼성 합창단은 베토벤의 '천사들의 합창', 킹스싱어즈의 'Plasird' anou'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게 된다.

상록 정기총회

• 오는 6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상록정기총회가 열린다. 고아원, 장애자, 교내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여려봉사활동을 해온 상록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1년동안의 경과보고, 결산정리, 신입회장단선임등을 하게된다.

캠퍼스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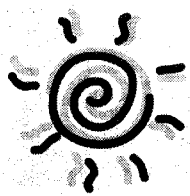
• 용인에버랜드는 오는 7일까지 대학생 우대 '캠퍼스 페스티벌'을 펼친다. 이 기간중 입장하는 전문대 이상 모든 대학생들에게는 페스티벌 월드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야간이용권에 대해 50%씩 할인해 준다.

축제기간중 캠퍼스 기네스, 스파이더맨, 비밀의 문 등 다양한 참여 행사가 열린다. 또한 우리학교 NAKED가 참가해 멋진 공연을 펼친다.

MDOP 정기연주회

• 오늘부터 2일까지 크라운관에서 제32회 MDOP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MDOP은 아마추어 관현악단으로 음악과 인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뭉치니의 비단사다리, 생상의 서주와 론도카프리치오소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8번을 들려주게 된다. 입장시간은 오후 7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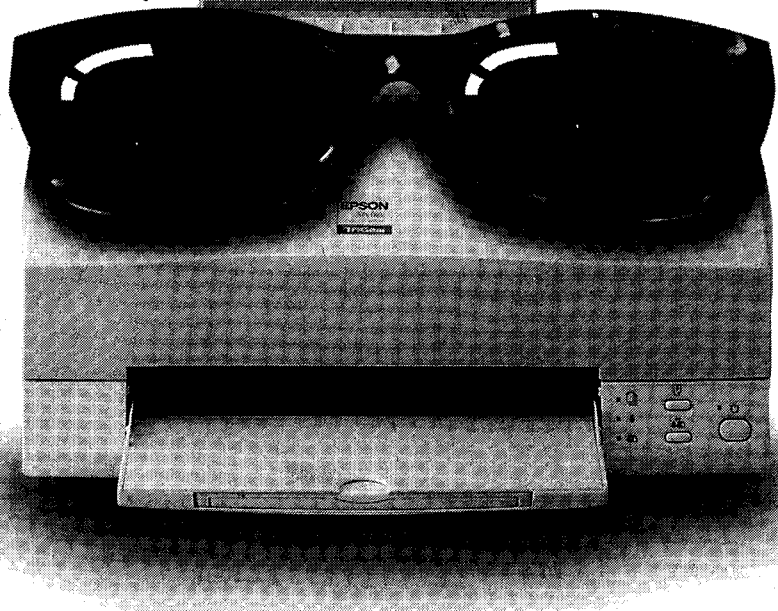
삼보컴퓨터
http://www.trigem.com



앗!

"레이-밴 선글라스닷!"

시원한 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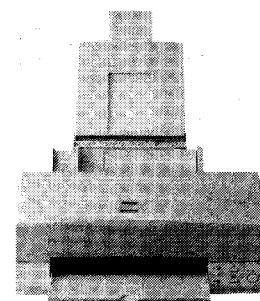


삼보 컬러프린터 600H(1440DPI)를 할인가격에-레이-밴 선글라스까지 보너스로 드립니다

기간 97. 8. 27~9. 13

사은품 레이-밴(Ray-Ban) 선글라스
킬러-루프(Killer-Loop) 선글라스 중 하나

해상도 1440DPI로 컬러 커뮤니케이션 한다.



삼보프린터 1440
TRIGEM & EPSON Stylus COLOR 600H

- 인쇄방식: 아하방식
- 해상도: 1440DPI X 720DPI
- 인쇄속도: 흑백6PPM, 컬러4PPM
- 용지지원: A4, B5, 엽서, Letter, OHP film, T-shirt 전사용지
- 가격: 399,000원 → 400,000원(VAT 포함)
단, 가격할인은 9.10까지